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부장 기업에 1,200억 원 지원으로 5,500억 원 투자 촉진

- 산업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등 총 21개 기업에 투자지원금 지급
-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12N), 이차전지용 전해액 등 공급망 자립화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18(화) 8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이하, 기술소위)를 개최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투자지원금\*(이하,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 21개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 대상·규모 : ①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②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③중소·중견기업의 ④국내 신규 투자분 ⑤30~50%(국비+지방비) 지원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총 1.2조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약 2,100억 원)이 접수되었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첨단산업 4개 업종(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에 총 1,211억 원(지방비 포함)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별도 안내를 통해 사업추진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늘 기술소위에 참석한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6개 업종(로봇·방산분야 추가)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 기준 국비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배재형 (044-203-4141)
			주무관	강민경 (044-203-4143)



- **(도입배경)**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첨단산업 핵심품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공급망·경제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지원규모)** '25년 국비 700억 원(지방비 포함 1,211억 원)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지원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①공급망 안정품목\*, ②전략물자\*\* 생산 소부장 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에 대해 입지·설비지원금 지급
  - \*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 경제 영향 등을 고려,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선정
  -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
- **(지원내용)** 신규 입지·설비투자(R&D 인건비는 제외)의 최대 50%(지방비 포함)로 투자사업장의 위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보조율 차등 적용

구 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국비 40%)	30%	40%
비수도권 (국비 60%)	40%	50%

※ (국비 지원한도) 기업당 200억 원, 투자프로젝트 건당 150억 원

- **(지원방법)** 총 3년('25~'27년)의 투자계획을 접수, 평가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 지급 후 최대 3년간 투자수행, 이후 3년간 사후관리 및 정산
- **(추진일정)** 사업 공고(7.23일) → 투자계획 접수(7.25~9.26일 16시) → 실무검토 등(~10월) → 평가 및 지급결정(~11월) → 집행(12월)